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 어떻게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할 것인가?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진정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독창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 이 기독교의 독특한 성격을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한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는 그 독창성 때문에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왜냐면 그 독창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성을 거부하는 쪽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성격을 독선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독창성을 오해해서 나오는 소리다. (또는 일부 기독교의 독창성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독선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오해이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의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발달하여 왔다. 마치 대중가요와 같아서 더 많은 대중들의 종교성을 만족시켜주면 그 종교는 추종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상, 제사의식, 율법, 경전, 기복신앙, 교리(구원관, 내세관, 신관, 세계관) 등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독창성은 무엇인가?

1. 그것은 우상이 없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 종교라는 점이다.
 - 기독교는 사람을 하나님 바로 앞에 위치시키는 종교다.
 -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 모세가 하나님과 직면하면서부터 진정한 기독교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2. 기독교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아왔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5:10-11)

-진정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 유일한 종교다.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한 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두번째로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은 북한 정부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3. 기독교는 끊임없이 세상을 변혁시켜왔다.

-변혁을 주도하되 선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는데,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역사적 인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변화시켰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 하였다. (그러나 126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변질되었으며, 결국은 종교개혁을 필두로 다시 성령운동이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대화, 현대화를 이끌었다.

-그 어떤 종교도 해 내지 못하는 변혁을 세상에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독특

한 사상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곧 현재의 세상을 변혁시키는 핵심가치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 주,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누구보다도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이 보였던 세례요한은 사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있는 사람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자타공인 매국노에 파렴치한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칭찬을 받고, 일곱귀신들려 가장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고 그 행위 또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적신자로 기념하게 되었지 않는가?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단순한 헤프닝이나 우연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핵심적인 사건일까? 핵심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추측이 어긋났다. 왜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에 속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야당이였다. 정치적으로 여당은 사두개인들, 즉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였다.(0순위들) 그러나 이들의 영성은 이미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해석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였다. 그래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는 피터지는 설전을 마다하지 않는 야당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목소리가 세고 강하였으며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이런 사회적인 구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신앙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구약성경에는 주로 예언자 그룹들이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직업적으로 종교인들은 아니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런 직접 계시를 받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 일컫는 자들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세속을 떠난 재야에 속한 인사들이었다. 그래도 성령운동만큼은 꼭 이런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선언하셨다. 왜냐면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기만 하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철저한 회개다.

-철저한 회개란 말씀을 깨닫는 즉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철저한 회개란 저주를 끊는 것이다. 저주는 삶과 연결된 끊기 힘든 악한 습관이나 직업, 관행적 비리, 무의식중에 행하는 망령된 행실, 신념화된 거짓된 맹세등이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영적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속하기도 하고, 이 저주를 끊으면서 식구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니 저주는 교리적으로 끊어지는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전쟁을 통해서

끊어진다. 어린이 훈육도 마찬가지. 청소년 수련, 청년은 동고동락을 통해서.)

둘째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3)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그러나 성령의 임함은 기계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다.

-성령은 스스로가 자유로운 인격체이시며 성령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3:8)

-성령으로 충만하는 가장 우선적이며 정확한 길은 성경공부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의 간계를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두 번째 우선적인 길은 영적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다. 성령은 스스로 성경공부를 잘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영적인
교제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자에게 비로소 가능해 지며, 그
래서 성령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하나님 앞에서 말씀: 신명기 18장 13절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18:13)

-성경에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이 약 280번 정도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의 뜻

-결코 하나님이 되라는 뜻이 아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자도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 있는 자가 된다. 사실 이런 자가 제일 골치.

-기도하나 듣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길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는 가장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자기의식 때문에 만족을 누릴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싫어하신다. (대개 그런 자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완전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라는 뜻.

-다 이루고도 우리는 떳떳하지 않는 태도가 사실은 완전한 태도가 된다.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자임을 잘 알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나 누추하지 않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 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